

거북선과 이순신의 숨겨진 진실

「거북선」 「긴칼 옆에 차고 수루에 혼자 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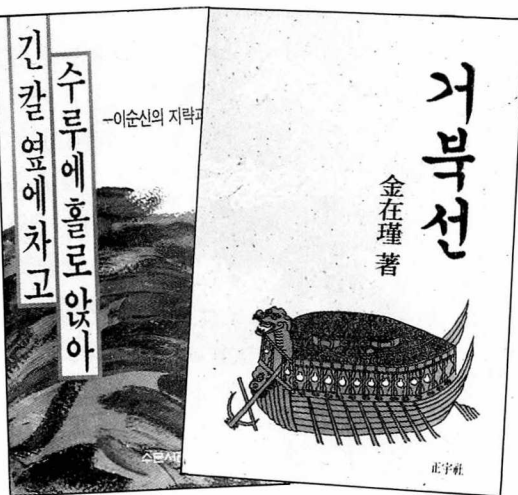
임진왜란이 발발(1592년 음력 4월)한 지 꼭 4백주년이 되는 이달 들어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과 그의 거북선에 관한 책이 나란히 출간돼 색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재근(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 부회장)씨의 「거북선」(정우사)과 남천우(전 서울대 교수)씨의 「긴 칼 옆에 차고 수루에 홀로 앉아」(수문서관)가 그것으로, 이 두권의 책은 각각 임진왜란 승전의 결정적 전기가 됐던 두 주역 거북선과 이순신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고 그 실체를 규명하는 본격적 연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상당부분 신화의 그늘 속에 가려졌던 거북선과 이순신의 진면목을 새롭게 드러내는 책들로 평가된다. 특히 이 두 책은, 과학자(조선공학자와 물리학자)들에 의한 역사연구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사실 이외에도, 동일한 연구대상에 대한 두 저자의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담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거북선은 결코 철갑선이 아니다」

「거북선」은 「조선왕조근세연구」 「거북선의 신화」 「한국선박사연구」 「우리배의 역사」 등을 통해 한국선박사 연구의 독보적 경지를 일궈온 저자가 거북선에 관한 기왕의 연구를 한데 집대성하여 체계화시킨 책. 서두에 거북선이 등장한 경위와 배경을 약술한 다음, 그 구조와 船型, 크기, 성능 등을 자세히 고찰하고 이어서 거북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韓船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거북선은, 평지돌출식으로 갑작스레 등장한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재래식 한선의 일종이라

임진왜란 승전의 두 주역인 거북선과 이순신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있는 이 책들은 조선공학자와 물리학자에 의한 역사연구라는 점에서 우선 흥미를 끈다. 특히 남천우씨의 경우, 이순신의 죽음이 위장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명종조 이후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왜구의 연안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되기 시작한 '관옥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관옥선의 구조에 다 거북무늬의 개판을 씌운 것으로 결코 잠수함도 철갑선도 아니라는 것. 다만 차이가 있다면 관옥선이 적선을 일정한 거리에 떼어놓고 교전하는 데 유리한 데 비해, 거북선의 경우 적의 선단 한가운데 뛰어들어가 좌충우돌식의 전투에 임하는 돌격선으로서의 기동성과 선회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긴 칼 옆에 차고 수루에 홀로 앉아」는 앞의 책이 거북선의 조선공학적 해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부제 「이순신의 지략과 죽음의 의문」이 가리키듯 이순신의 개인사에 얽힌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 「난중일기」를 비롯해 이순신의 장계나 선조의 유서, 그밖에 왕조실록 등의 꼼꼼한

문헌섭렵을 통해 저자는 이순신이 살았던 선조 치하의 조선시대를 '난세'로 규정한 다음, 그 난세에 한사람의 탁월한 장수로서 살아남기 위한 이순신의 지략과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선조의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극도로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의병장 김덕령의 무고한 죽음과 이순신 자신이 겪은 몇번에 걸친 죽음의 고비로 미루어 이순신의 죽음은 여러가지로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즉, 뛰어난 신하를 결코 용납치 않는 선조의 의심과 음해를 피하기 위해 이순신이 노랑해전에서 자신의 죽음을 '연출'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자는 제기하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종전에 즈음해 이순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세가지 길을 ①잠시동안 영웅대접을 받다가 김덕령처럼 선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 ②싸움터에서 일부러 죽는 길 ③죽음을 위장하여 살아남는 길로 파악하는

저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세번째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순신의 죽음은 위장됐을 수도 있다」

김재근, 남천우씨의 책들에서 또하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두 저자 모두 거북선이 결코 철갑선이 아니라 관옥선의 한 발전적 변형으로서 임진왜란 당시 해전의 주력선은 오히려 관옥선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렇다고 해서 거북선의 가치를 낮춰보지도 않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재근씨의 경우 거북선이 왜선에 직접충돌하여 그것을 격파시킬 만큼 견고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본 데 반해, 남천우씨는 직접 충돌하여 왜선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포를 쏘아 적선을 침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북선 인양작업에 대해서는 두 저자 모두 거북선이 기본적으로 목선이란 점을 들어 그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기도.

—강철주 기자

어차피 만들어야 할 책이라면

●아낄 것은 아깁시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낄 수 없는 것을 아끼려는 노력은 프로답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만들 책이라면 잘 만드는 것이 불황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전략이 아닐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출판사’만 예외일 수 없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좋은 책을 만드십시오. 저희 여름새벽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출판사의 기획 의도를 복디자인을 통해 구체적인 제작물로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출판사들마다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수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고 제작비는 오르고... 요즘 같아서는 출판하기가 겁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예, 확실히 불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출판사’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표지·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단행본·잡지·사보편집대행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62-63(신촌문고 뒤) 전화/325-4963·4 팩스/325-4965